

美 전력 수요 폭증·中 규제 강화… K-태양광, 재도약 신호탄

EIA “2035년 태양광 설비 64% ↑”
전력 수요 급증, 태양광 확대 불가피
한화, 조지아주에 3조2000억 투자
OCI, 텍사스에 2GW 셀 공장 건설
현지 생산거점 확대, 시장 입지 강화

한화솔루션 등 국내 대표 태양광업체들이 미국내 전력수요 급증과 우호적 세액공제제도 변화, 태양광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 등에 힘입어 시장입지를 대거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최근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생산 거점을 확충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3조2000억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허브’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OCI홀딩스 역시 2억6500만 달러(약 3600억원)를 투입해 텍사스주에 2GW 규모 태양광 셀 공장을 짓는 등 현지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현재 약 156GW에서 2035년까지 약 255GW로, 약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OCI홀딩스 자회사 OCI Energy가 운영하는 미 텍사스 샌안토니오 베어카운티의 알라모1 태양광 프로젝트 전경. /OCI홀딩스

대응하기 위한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태양광 시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도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세액공제 지침 개정은 대규모 유틸리티 프로젝트의 조건을 한층 강화한 반면 1.5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기존 5%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화솔루션 큐셀부

문 영업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용 TPO(Third Party Ownership; 3자소유방식) 사업에도 이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화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 속 태양광산업의 탈중국화 흐름도 국내 기업에 기회로 꼽힌다. 미국은 폴리실리콘부터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서 중국산 제품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몰려 있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은 강제노동 연루 가능성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됐으며 이와 함께 인도·라오스·인도네시아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도 진행돼 중국산 제품의 우회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시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차지했다. 한국에서는 OCI홀딩스만이 폴리실리콘을 생산 중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로 중국산 제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까지 차단되면서 OCI홀딩스의 입지 확대가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가 태양광 밸류체인 탈중국화를 촉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전력 수요 증가로 태양광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S전선

중전압 내화 케이블 개발 데이터센터 등 안전 강화

고전력 설비가 밀집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초고층 빌딩과 대형 쇼펄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은 물론, 현장 작업 인력의 안전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화 케이블이 개발됐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국제 신규 내화 기준(IEC 60331-4)을 충족한 MV(중전압) 내화 케이블을 상용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830℃ 고온에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해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고전력 인프라에 최적화됐다. 내화 케이블은 화재 시에도 일정 시간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비상 전원, 피난 설비, 소방 시스템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기존에는 국내 표준이 없어 일반 케이블에 방화 도료와 덕트를 씌우는 복잡한 시공 방식을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간·비용 부담은 물론,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 LS전선의 신제품은 케이블 하나로 기존 3단계 공정(케이블+도료+덕트)을 대체해 시공을 간소화하고 설치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 작업 인력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내 전기차 시장, 캐즘 극복하며 50% 성장세

1~8월 판매 14만대… 점유율 12.7%
EV3·캐스퍼·모델Y 신차효과 주도
보급목표 33만대 미달, 과제 남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국내 전기차 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안전에 대한 기술 강화와 함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모델의 라인업 확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덕분이다. 이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1~8월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는 14만2456대로 작년 동기(9만5998대) 대비 48.4% 증가했다. 전체 신



기아 EV3.

규 등록 차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9%에서 12.7%로 3.8%포인트 증가했다.

판매량 증가 요인으로는 신차효과가 가장 컸다. 지난 5월 출시된 테슬라의 신

형 모델Y가 2만8000대 이상 판매되며 수요를 이끌었다. 여기에 기아 EV3·레이EV 및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소형 전기차도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고 KAMA는 분석했다. 예년보다 빨라진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제조사 신차 판촉 경쟁 등으로 전기차 가격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8월 국산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한 8만6777대가 팔려 전체 시장의 60.9%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는 48.6% 늘어난 5만5679대가 팔렸다. 이 가운데 모델Y를 비롯한 중국산은 69.4% 증가한 4만2932대가 판매됐다.

KAMA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올

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인 33만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현시점은 대미 수출이 제한되고 현지 전기차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수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내 전기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며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월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파이어맨 액세스’의 특허를 공개하며 직접 개발한 자동차 화재 진압 기술을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 안전 최우선 경영·미래 신사업 확대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 신설
외부 전문가 위촉해 독립성 강화

포스코그룹이 안전한 일터 조성 and 미래 신사업 확장을 목표로 한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8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인화 회장(사진) 직속으로 신설된 ‘안전혁신·미래전략 자문위원회’는 9일 전남 광양에서 열리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각 사업장에서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 자문위는 ▲안전 ▲미래 신사업 ▲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사외 전문위원과 그룹 최고경영층이 함께 참여해 경영 전략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위원장과 전문위원 전원을 사외 인사로 위촉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위원장에는 박준식 한림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안전 분과는 김경문 성공회대학교 총장이, 미래 신사업 분과는 운영

철 플랫폼03파트너스 부사장과 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가, 커뮤니케이션 분과는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가 각각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안전 분과는 작업중지권 강화, 원·하청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해 글로벌 선진 수준의 안전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전문 회사’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월 출범한 그룹안전특별점검TF의 활동 결과를 반영해 안전

제도와 문화, 기술 혁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 신사업 분과는 포스코그룹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희토류 등 전략 산업을 발굴·육성한다. 글로벌 지정학 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해 기후·환경 혁신 및 상생 협력에 힘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커뮤니케이션 분과는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기관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혁신과 미래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진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OLED TV, 밝은 곳도 빛 반사없이 선명하게”

삼성전자의 OLED TV가 정확한 블랙을 구현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OLED(SF95) TV가 독일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VDE로부터 ‘리얼 블랙’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삼성 OLED TV만의 ‘눈부심 방지(글레어 프리)’ 기술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글레어 프리 기술을 통해 진정한 ‘리얼 블랙’ 시청 환경을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레어 프리는 햇빛이 강한 낮이나 조명 아래에서도 빛 반사 걱정 없이 생생한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2025년형 삼성 OLED TV는 글레어 프리 2.0 기술이 적용돼 더욱 개선된 빛 반사 제어가 가능하다.

이번 VDE의 리얼 블랙 인증은 ▲화면 시청 중 조광 비침으로 인한 시청 방해 수준 ▲글레어 프리가 적용된 TV 화면 표면 광택도 수준 ▲블랙 레벨 성능에 대한 표준 등 3가지 테스트를 했다.

삼성 OLED TV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 블랙 레벨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삼성 OLED TV는 밝은 환경에서는 빛 반사 없이 생생한 화면을 구현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0.005니트 이하 수준의 블랙 휘도를 구현해 완전한 블랙에 가까운 ‘리얼 블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차현정 기자 hyeon@